

EU 주요국의 다랑어 수입 현황

■ EU 다랑어 어획 감소

- EU의 황다랑어 어획은 지난해부터 동인도(Eastern Indian)와 서태평양(Western Pacific)수역에서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황다랑어의 가격은 급증하고 있으며 가다랑어 가격 역시 양륙량 감소로 인하여 2006년에 톤 당 885달러에서 2007년에는 톤 당 1,075 달러로 높게 형성됨

■ EU의 다랑어 로인 수입 증가

- 프랑스에서는 다랑어 통조림 생산에 이용되는 다랑어 원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점차적으로 통조림 공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프랑스의 2006년 다랑어 수입은 2005년에 비해 20%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 기간동안 다랑어(whole tuna)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로인(loins, 필렛 반으로 나눈 형태)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가동 중인 프랑스 통조림 회사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랑어 로인대사 고품질의 다랑어 상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임
- 이탈리아의 다랑어 원료 수입은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이탈리아는 5만 6천 톤 가량의 다랑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임
 - 아울러 다랑어 로인 역시 2006년에 4만 3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총 다랑어 수입의 73%를 차지하는 값으로 1999년의 47%, 2005년의 66%와 비교할 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품목임
 - 또한 EU는 낮은 인건비로 인해 수출 가격이 싼 안데스 공동시장(Andean Community)에서 다랑어 로인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 이탈리아 수입(다량어 로인) 】

(단위: 천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에콰도르	15.2	9.9	14.5	12.7	12.0	14.6
콜롬비아	12.6	10.8	14.7	12.8	14.3	9.7
케냐	2.3	5.7	2.9	7.0	8.1	6.7
태국	0.5	2.1	2.2	1.1	1.3	3.2
스페인	0.9	0.1	0.0	0.0	0.0	0.3
기타국	3.7	1.2	4.0	2.4	4.9	8.5
총합	35.2	29.8	38.3	36.0	40.6	43.0

- 전통적으로 고품질의 다량어 통조림 공장이 많은 스페인은 가공을 위해서 수년간 다량어 로인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현재 노동비 절감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가공원료로 로인을 사용하고 있음
 - 스페인은 중앙 아메리카나 안데스 공동시장 등에 다량어 로인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현재 수입 통계상에서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임
- 현재 스페인의 경우 다량어 통조림을 위해 수입되는 다량어 로인은 다량어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2년도의 8%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스페인의 다량어 로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5% 상승한 3만 7,500톤에 달하였음

【 스페인 수입(다량어 로인) 】

(단위: 천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에콰도르	4.0	6.0	19.0	7.2	8.8	16.0
엘살바도르	0.0	0.0	0.5	8.6	13.2	10.9
과테말라	0.0	0.1	0.2	4.1	6.6	2.2
포르투갈	0.1	0.3	1.4	0.5	1.2	1.4
콜롬비아	1.4	0.2	0.1	0.1	0.1	0.3
태국	0.0	0.2	1.1	0.1	1.9	0.0
코스타리카	0.4	0.3	2.3	0.4	0.0	0.0
베네주엘라	0.0	4.0	5.7	2.9	0.0	0.0
기타국	0.4	1.9	1.6	2.2	4.0	6.7
총합	6.3	13.3	31.9	26.1	35.8	37.5

■ EU의 다량어 통조림 수요 증대

- 2006년 EU의 다량어 통조림 수입이 늘어났는데, 주요한 공급국들은 주로 EU가 투자해서 공장을 세운 나라들임
 - 구체적으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수출을 통해 EU 시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공급국들은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다량어 통조림을 주로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음
 - 2006년 다량어 통조림 가격이 2006년에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은 원재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원재료의 가격 또한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스페인과 영국은 EU의 다량어 통조림 주요 소비국임
 - 스페인은 여전히 국내 통조림 공장에서 공급된 통조림에 주로 의존하는데 반해 영국은 주로 다량어 통조림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다량어 소비를 1인당 4kg(1년당)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총 수산물 소비는 20kg이므로 다량어 소비가 총수산물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은 매년 13만 2,000톤 정도의 다량어 통조림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공급국들은 세이셸, 모리셔스, 가나로 태국의 경우 자체상표를 통해 대형마트 체인에 다량어를 공급하고 있음
 - 이러한 주요 공급국들 중 가나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의 공급은 증가하고 있었으며 가나로부터의 수입의 감소는 2006년에 가나 수역에서의 어획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이 수역의 기후 변화와 높은 유류비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됨
- 프랑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다량어 통조림 수입이 많은 나라이며 최근 수입량은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었음

【 프랑스 수입(다량어 통조림) 】

(단위: 천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코티드브아르	33.4	41.0	30.3	33.7	21.6	23.1
스페인	15.2	13.8	19.1	18.6	21.8	22.0
마다가스카르	9.3	10.0	14.4	12.9	14.7	15.4
세이셸	8.6	11.0	12.6	14.7	11.3	14.7
이탈리아	3.6	6.2	9.8	7.3	8.0	8.9
세네갈	4.9	6.7	6.9	4.9	4.3	1.1
기타국	15.9	28.7	22.7	15.0	28.9	35.2
총합	90.9	117.4	115.8	107.1	110.6	120.4

- 코티드브아르로부터의 수입은 2005년에 급감하여 2006년까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세이셸로부터의 수입은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2005년에는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이 문제를 해결한 후 수입은 2005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독일의 다랑어 통조림 수입은 8만 톤으로 여타 EU국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독일은 매년 다랑어를 개인당 2kg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랑어 통조림은 주로 필리핀, 에콰도르,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특히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에 5천 톤에서 2005년에 1만 1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1만 6천 톤 정도로 급증하였음

【 독일 수입(다랑어 통조림) 】

(단위: 천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필리핀	20.5	28.5	29.4	19.1	20.3	23.4
에콰도르	2.2	4.1	4.8	13.7	14.6	15.8
태국	5.1	9.3	9.6	5.6	11.5	18.1
파푸아뉴기니	2.0	5.2	8.7	10.7	9.6	4.4
인도네시아	1.3	2.1	2.7	3.5	7.0	6.0
세이셸	6.9	8.2	10.6	5.4	6.6	6.7
프랑스	9.2	16.8	13.7	7.3	5.7	2.2
기타국	21.3	11.5	12.2	15.9	8.5	10.2
총합	68.5	85.7	91.7	81.2	83.8	86.8

■ EU 지역에서 다랑어에 대한 높은 수요

- 전세계적인 다랑어 자원감소와 소비증가로 인해 최근 다랑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더 이상의 다랑어 가격 상승은 다랑어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EU 다랑어 업계 관계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국가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베트남이 다랑어 통조림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음